

Vol 381

2019/12/19 Thursday

발행인 박동욱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Great company Great people · culture · value

HYUNDAI E&C TODAY

ART+H

Headquarters building of Hyundai E&C

Season's Greetings “빛나는 당신! 수고했어, 올해도”

This year's end is already around the corner. When looking back to this year, what comes to your mind? Amid the tough business environment, during 2019, Hyundai E&C was awarded mega-sized projects both at home and abroad as well 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and Kuwait's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both called masterpieces in the 21st century.

There is a saying that the wind and waves are always on the side of the best navigator. A crisis to someone can be an opportunity to those who prepared to it. Hyundai E&C is standing at another starting line. We invite you all to our great journey that lies ahead in coming 2020.

▶ Continued on page 6, 7

2019년의 끝자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뒤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시나요? 올해 현대건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한 데 이어, 21세기 걸작이라 불리는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를 준공하며 세계 속에서 이름을 빛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사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인 거친 파랑도 준비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현대건설은 다시 새로운 출발선상 앞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현대건설의 멋진 항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관련기사 6, 7면



현대건설 사옥

2019 현대자동차그룹 ‘변화와 혁신 대상’, 현대건설 대상 수상

토목사업본부, ‘세계 최대 규모 Pre-fabricated 박스거더 기계화 급속시공’ 과제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한 ‘2019 변화와 혁신 대상’에서 우리 회사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그룹 전체에 변화와 혁신 동기를 부여하고 고객과 인재를 존중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변화와 혁신 대상’에서 우리 회사는 29개 계열사의 총 88개 과제가 출품된 가운데 1위인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토목사업본부의 ‘세계 최대 규모 Pre-fabricated 박스거더 기계화 급속시공’ 과제는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에 적용한 사례로, 우리 회사는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 공기를 5년(66개월)으로 단축한 것은 물론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Pre-fabricated 박스거

더’ 공법은 2001년 당시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경부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한 것으로, 2003년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399호로도 지정받았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을 대표해 현대자동차그룹의 ‘변화와 혁신 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에 ‘Pre-fabricated 박스

거더’ 공법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본사 및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변화와 혁신 대상’에서는 ▶현대·기아차의 ‘iMT 데모카 개발을 통한 양산 전개’ ▶현대트랜시스의 ‘친환경 무용제형 폴리우레탄 상온 접착기술 개발’ 등이 수상했다.



스마트 기술로 건설 경쟁력 강화한다 ... 인공지능 산업용 로봇 현장 투입 추진

우리 회사가 미래 신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에 속도를 낸다.

우리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기술은 건설 숙련공이 하던 업무 패턴을 프로그래밍화해 기존의 다관절 로봇에 입력한 것

로, 사람의 손과 팔만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운반용 기계차량에 탑재해 현장 어디에서나 작동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은 작업자의 숙련도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작업할 수 있어 생산성·경제성 측면에서도 효과적

이다.

R&D센터 연구진은 “2018년부터 시작한 건설 로봇 연구의 성과를 구체화해 드릴링, 페인팅 등 단순 작업의 현장 시범 적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던 노동자들의 안전 및 작업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부유식 계류장 실증사업 1단계 수주

우리 회사가 최근 싱가포르 부유식 계류장 실증사업 1단계 상세설계를 수주하며 신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이 발주한 이 사업은 선박 계류 시설 해양점유 면적을 최적화하고 이동이 가능한 계류 시설을 개발·실증하는 프로젝트다. 1단계 수주금액은 142만SGD로, 공기는 착수일부터 8개월간이다. 향후 2단계 실증시공은 1단계를 수행하는 2개사를 대상으로 한 가격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사업비는 1000만 SGD(약 90억원) 규모다.

한편 우리 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싱가포르 부유식 구조물 시장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NTU(Nanyang Technology University)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 부유식 구조물 설계 및 시공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이 발주한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하주차장 내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 개발

우리 회사가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건식 세차 공간 ‘H 오토존(Auto zone)’을 도입한다.

H 오토존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원터치로 사용 현황을 확인·예약하는 것은 물론 넓은 공간에서 세차·경정비·튜닝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진공청소기, 에어건 등을 이용하면 집 근처 세차장을 찾을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건식 세차도 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현대자동차 디자인경영 담당과 협업해 H 오토존의 디자인을 개발했다. 전



체적인 콘셉트는 퓨어 화이트와 유리·스틸 소재를 적용해 미래지향·친환경적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적용 후 모니터링·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 그룹 CSR 진단결과 보고서’ 우수사 선정

우리 회사가 지난 11월 29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열린 ‘2019 그룹 CSR 진단결과 보고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사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을 비롯해 15개 그룹사의 CSR(사회책임경영/지속가능경영) 및 사회공헌 담당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5개 그룹사를 대상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리스크 관리 수준을 면밀히 진단했다. 그 결과 CSR 목표수립 부문에 현대건설, CSR 지원제도 부문에 현대모비스, CSR 리스크 관리 부문에 현대제철, 사회적 가치 창출 부문에 현대트랜시스가 선정됐다. 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현대건설은 CSR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 로드맵을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회사는 DJSI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10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하는 등 사회책임 및 지속가능경영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이웃돕기 성금 25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12월 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이웃돕기 성금으로 2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2003년부터 성금 전달을 시작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13년부터는 매년 250억원을 전달하는 등 17년간 총 284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내 뉴스

국도 37호선 전곡~영중 간 도로 개통식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이 12월 16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토목사업본부 이용 상무를 비롯해 이윤우 서울청 도로시설국장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현장은 국내 최초의 ‘2+1차로 도로’로, 양방향으로 추월이 가능한 차로를 설치해 통행효율을 극대화했다. 총 연장 6.6km에 2+1차로 도로(폭원 15.75m), 교량 8개소(718m) 등을 포함한다.

현장 관계자는 “2009년 착공 이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본사 및 현장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건본주택 개관



우리 회사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가 7-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건본주택을 개관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지하 4층~지상 49층의 아파트 5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84~112㎡의 아파트 803세대와 전용면적 43~46㎡의 오피스텔 150실로 구성됐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은 물론 향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으로 롯데백화점 대구점을 비롯해 생활편의 시설이 도보거리에 있어 편리하다.

분양 문의: 1899-9839

Global Christmas treats come to Seoul

Dec 13

The Christmas spirit was in the air at the Seongsu-bukcheon Fountain Square in central Seoul last weekend as people braved the freezing temperatures to queue for Czech goulash or Ukrainian varenyky.

"I have to say, I was impressed by how good the food was," said Lindsey Johnson, a native of Florida who has been teaching English in Seoul for two years. "You have to try these sausages from the German booth."

Local communities of residents from 13 different countries were selling some of their signature dishes that were cooked using Korean produce and ingredients. Counting sausages alone, there were Polish, German and Romanian varieties being cooked at the stalls last Saturday.

"These are kielbasa," said Bartosz Kaczmarczyk, a chef from Poland, as he turned the sausages on the grill. "I have a business in Yongin and we cater a variety of meat and deli products made with ingredients in Korea but with traditional recipes from Europe."

The German booth was offering craft beer in addition to its sausages and sauerkraut, although more people flocked to the booth offering steaming cups of Glühwein, a type of hot spiced wine that is also commonly found across Christmas markets in Germany and Austria.

All the booths were run by businesses and local communities recommended by the embassies of 13 nations - Belgium, Bulgaria,



ia, Croatia,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Romania, Russia, Slovakia, Spain, Poland and Ukraine.

"We expected around 10,000 people to come to the market, but I have to say this year's market was by far the most crowded," said an official of the Seongsu District Office, which helped organize the event with the Seoul Global Center. "It's become an annual festivity for the neighborhood."

Although they tend to be more food-focused than an average Christmas market found in parts of Europe at this time of year - there was just one or two stalls at each market offering some Christmas ornaments and decorations - that's not a bad thing, according to some frequent visitors of the market.

"It's different from the markets I'd find in France," Justine Smith, a French citizen who has been living in Seoul for a year and a half said.

"Each year the problem of size of the market space is raised," said Jacco Zwetloot, who has been coming to the market since 2014. "I understand that Seongsu-gu is very keen to have the market stay in its jurisdiction, but with the numbers of visitors estimated at 20,000 this year, the difficult question must be asked - should the market be moved to a bigger place?"

The stage at the market was used throughout the day by musicians and artists to play Christmas carols and for auctions for certain special products.

But the appearance of local district mayors giving booming speeches in Korean on stage at the market near the end of the day made this reporter wonder if she was at a Christmas market or a political campaign.

Each of the events seemed to be international enough for some Korean visitors visiting the market for the first time.

By KOREA JOONGANG DAILY

Balance in the current account rises slightly

Dec 06

The current account surplus inched up slightly in October to a 12-month high.

It totaled \$7.83 billion that month, up from \$7.76 billion in October, according to preliminary data from the Bank of Korea.

Despite the increase, the goods trade surplus narrowed to \$8.03 billion from \$8.7 billion, pulled down by declining prices of semiconductors and petrochemicals.

On an annual basis, the downturn was more

obvious, with the goods surplus falling 23.7 percent.

The drop in the goods trade surplus was offset by the services trade, which measures travel, transport and construction.

The services account deficit declined from \$2.26 billion the previous month to \$1.72 billion, helped by a rise in spending by inbound tourists, especially those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Korea's primary income account surplus

grew from \$1.54 billion to \$1.83 billion on month. Exports plunged 14.5 percent on year to \$49.12 billion in October on a customs clearance basis, extending the slump to an 11th consecutive month due to weak prices of semiconductors and a trade row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s imports dipped 12.5 percent on year to \$41.09 billion.

By KOREA JOONGANG DAILY

Hyundai i30 N TCR customers take second successive FIA WTCR title

BRC Hyundai N Squadra Corse driver Norbert Michelisz has won the 2019 WTCR - FIA World Touring Car Cup title, reaffirming the Hyundai i30 N TCR's position at the top of the global TCR category.

The Hungarian driver sealed the title at the Sepang International Circuit at the season-ending WTCR Race of Malaysia. The event brought the extremely competitive season to a frantic finale with all three races taking place over a single day, with the closing event of the campaign held under floodlights.



Michelisz extended his championship lead on Friday as he clinched both pole positions on offer for the weekend, and the ten points that came with them. More important was the dominant win in Race 1, further building his advantage. It proved timely, as his closest rival took victory in a Race 2 conducted in appalling conditions to set up a tense finale.

Kia Telluride wins 2020 Edmunds Top Rated Award

The Kia Telluride has earned a 2020 Edmunds Top Rated Award, taking the win in its category to earn the title of Top Rated SUV.

"We 'gave it everything' during each phase of the Telluride's development, making sure that quality and attention to detail were second to none," said Michael Cole, president, Kia Motors America (KMA). "For the esteemed Edmunds experts to recognize the Telluride as one of the best vehicles on the road today is a grand achievement and yet another validation of Kia's commitment to building world-class



vehicles."

The 2020 Edmunds Top Rated Awards honor the overall best vehicles of the year based on their extensive vehicle testing and rating process. An Edmunds Top Rated Award represents the "gold standard of automotive excellence" and signifies that a vehicle is one of the best-of-the-best on the road today.

10 Minute Korean Lessons

At a cosmetics store

Who is this item for?
누가 쓰실 거예요?

Noo-gah sseu-sheel
ggaw-yeh-yo?

I will give this to my mom as a present.
엄마한테 선물할 거예요.

Awm-mah-hahn-teh
sawn-moo-rahl ggaw-yeh-yo.



► Related phrases



Toner
스킨/토너

seu-keen/to-naw



Moisturizer
수분크림

soo-boon-keu-reem



Acne
여드름

yuh-deu-reum



Freckles
기미

gee-mee



Moisturizing
보습

bo-seup



Soothing
진정

jeen-jawng

► Other expressions



Friend
친구

cheen-goo



Dad
아빠

ah-bbah



Younger sister/brother
동생

dong-sehng



Older sister
언니

awn-nee



Girlfriend
여자 친구

yuh-jah
cheen-goo



Boyfriend
남자 친구

nahm-jah
cheen-goo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TALK TO ME
IN KOREAN



Be Together, HYUNDAI E&C TODAY!

2019 사보신문 임직원 설문조사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가 2020년 더욱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이메일과 그룹웨어 게시판을 통해 진행된 올해 설문에는 한국인(1727명)·외국인(261명) 직원 총 1988명이 참여했다. 사보신문에 대한 관심과 기대, 방향성에 대해 엿볼 수 있었던 설문 결과 속으로. 글·정리=박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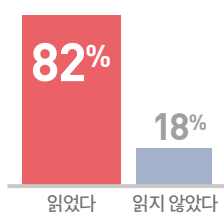
한국인 직원 1979년 1월 타블로이드 판형의 소식지 <現代建設>을 시작으로, 2001년 9월 현재의 신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행돼 온 사보신문.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항상 유지해 온 사보의 가치는 '사우들의 열린 소통 매개체'라는 점이다. 설문의 첫 질문인 "올해 사보신문을 읽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82%)가 읽었다고 답했다. 그중 74%가 그룹웨어,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사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사보신문은 현장 일러스트와 해외 건설시장 동향, 심리칼럼 등 전문가 칼럼을 확충했다. 반응도 좋았다. 올해 흥미롭게 읽은 기사들에 현장 취재, 사내 뉴스 외에도 신규 콘텐츠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다. 열독률 제고를 위한 의견도 개진됐다. 응답자들은 콘텐츠 강화, 임직원 대상 이벤트 확대, 온라인 노출 확대 등의 의견을 주었다. 사보신문은 설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온라인 매체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사내외 커뮤니케이터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Foreign Staff Hyundai E&C's PR Group is dedicated to publishing the in-house newsletter Hyundai E&C Today and introducing its news content through the Foreigner Board at our groupware and the online News Letter. Various stories and information for our foreign employees, available in English throughout pages of Hyundai E&C Today, include domestic and foreign news on the headquarters and construction sites, Korean culture, and interviews with global employees. In this year's survey of our foreign staff, the respondents found "Global News" (page 3) the most interesting section in Hyundai E&C Today, followed by "Top News" on the latest corporate issues and "Hello! Foreign Staff," Hyundai E&C Today will do the best to serve as a communicator to reach closer to our global employees by actively reflecting the findings of the 2019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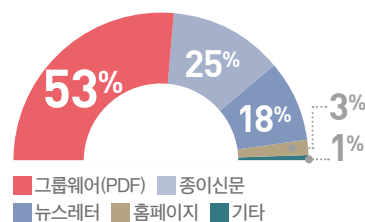


한국인 직원 1727명이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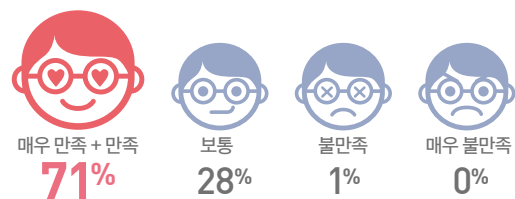
Q 사보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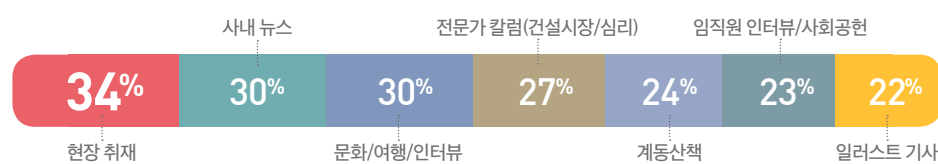
Q 어떤 경로를 통해 사보를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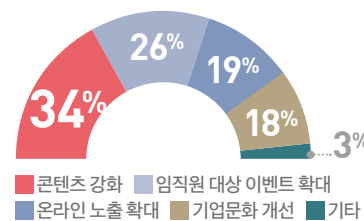
Q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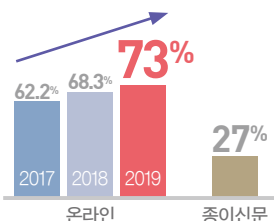
Q 올해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중복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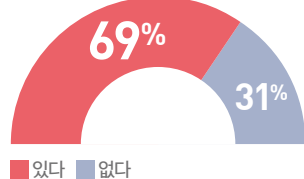
Q 열독률 제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종이신문과 온라인 중 어떤 매체를 더 선호하십니까?



Q 사보신문 발행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한다면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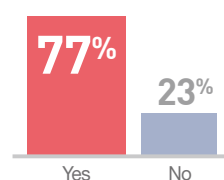


Q 사보신문에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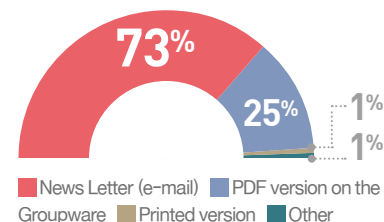


A total of 261 foreign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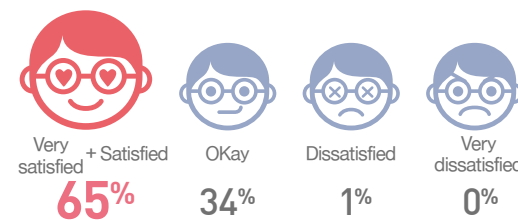
Q Have you ever read <HYUNDAI E&C TODAY> or News Letter (e-mai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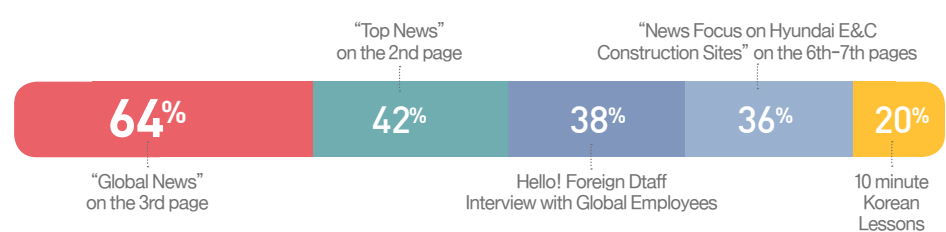
Q Which channel did you use to read <HYUNDAI E&C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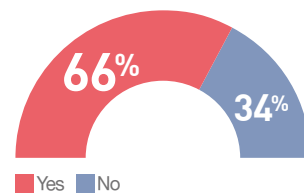
Q How much satisfied are you with the news content in ge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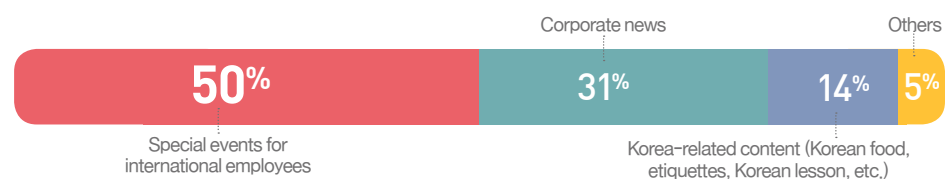
Q Which English content did you find the most interesting? (Choose all that apply)



Q <HYUNDAI E&C TODAY> has conducted "Hello! Foreign Staff" designed for our global employees throughout this year.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in this short interview?



Q What do you want to read more about?



Q Voices of readers





김정기 차장, 박유영 대리, 여주현 과장, 임재익 사원(왼쪽부터).

테마토크 스코틀랜드 속담에 “세상에 나쁜 위스키는 없다. 그저 덜 좋은 위스키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2020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 “세상에 나쁜 경험은 없다. 그저 덜 좋은 경험만 있을 뿐이다”. 사보신문은 2019년을 마무리하며 ‘수고한 나를 위해 위스키 한잔’이라는 제목의 연말 파티를 기획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사우들은 위스키 한잔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 온 자신을 격려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했다. 글=박현희 / 사진=이슬기

추위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2월의 어느 저녁, 계동 본사 앞 위스키&와인바 라쿠쁘(La Coupe)에 김정기 차장(구 매실), 여주현 과장(플랜트수주영업실), 박유영 대리(신시장마케팅TFT), 임재익 사원(사우디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이 모였다. “수고한 나를 위해 위스키 한잔”이란 이벤트 문구에 끌려 응모했다는 사우들은 본격적인 시음에 앞서 라쿠쁘 손기는 대표에게 ‘바에서 바텐더에게 주눅들지 않고 위스키를 주문하는 법!’이란 주제로 미니 강의를 들었다.

손 대표는 위스키를 크게 블렌디드(Blended)와 싱글 몰트(Single Malt)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블렌디드는 몰트(보리만을 증류) 위스키와 그레인(Grain, 옥수수나 호밀 등을 이용해 증류) 위스키를 섞은 것이고, 싱글 몰트는 하나의 몰트 증류소에서 나온 위스키를 말해요. 위스키의 맛은 오크통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표적으로는 셰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에서 숙성해 과일향이 나는 셰리 캐스크(Sherry Cask) 위스키 등이 있습니다.”

사우들은 미리 준비된 위스키를 시음하며 취향을 찾아 나갔다. 평소 싱글 몰트를 즐긴다는 임재익 사원은 소독약 냄새로 비유되곤 하는 피트(Peat)향이 강한 위스키를, 다른 사우들을 달콤한 셰리향과 함께 묵직한 풍미를 자랑하는 위스키를 선호했다.

ADIEU 2019 & HAPPY 2020

○ 연말 위스키 파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익 사원(이하 ‘임’) 저는 사우디 우스마니아 에탄 회수처리시설 공사 현장에서 위스키 체험일인 오늘(12월 10일) 한국에 왔어요. 귀국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말 위스키 파티’ 게시글이 얼마나 반갑던지, 꼭 뽑히고 싶어서 2~3일 동안 고심한 다음에 신청 메일을 보냈어요. 역시 사우디에서 종종 마시던 ‘싸데기(Sadeeqi, 밀주)’와는 맛의 차원이 다르네요(웃음).

김정기 차장(이하 ‘김’) 싱글 몰트에 취미가 있는 후배의 추천으로 신청했어요. 오늘 총 4가지 위스키를 시음했는데, 덕분에 제가 어떤 맛과 향을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요.

박유영 대리(이하 ‘박’) ‘수고한 나를 위해 위스키 한잔’이란 게

시판 문구를 보면 ‘맛아~ 한 해 동안 참 수고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니 한 해의 묵은 감정이 절로 해소되는 기분이에요.

여주현 과장(이하 ‘여’) 저는 고급 위스키를 마셔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웃음). 맥주만 먹다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니 무척 새롭네요.

○ 12월은 각종 시상식의 달이기도 하죠.

올해 수고한 나에게 스스로 상을 준다면?

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다 올 초 현대건설 플랜트수주영업실에 부임해 입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회사도 분야도 바뀌어서 고민이 참 많았지만, 적응을 마친 후부터는 3개월간 매일 야근을 하며 중동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매달렸어요. 결과도 좋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조직과 업무에 부드럽게 녹아들었다는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연착륙상’을 주고 싶어요.

김 올해 공동주택 협력사들의 공정을 관리하는 KAMS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근로자들이 휴대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PC 버전과 함께 모바일 버전도 제작했는데,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그런 의미에서 ‘장려상’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 올해는 탈장이 낄 정도로 일에 매진했어요. 현장이 바쁜데 먼저 복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기에 알라신이 내리는 ‘금주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미 그 상을 받은 듯해요(웃음).

박 올해엔 중남미 지역 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고자 많은 분과 협업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중남미 영업을 7년째 맡고 있는데, 그동안 개발 사업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첫 시도인 만큼 공부할 것도 많았고, 14시간의 시차 탓에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화상회의를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다들 열정을 가지고 함께한 만큼 보람찬 경험이었습니.

○ 12월 30~31일 단체연차가 되며,

5일간의 짧지 않은 휴가가 생겼어요. 계획이 있나요?

여 다음 현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려고요. 가족들과는 베트남 하노이, 여자친구와는 중

국 사면으로 떠날 계획이에요. 새해는 중국 사면에서 온전을 하며 맞고 싶네요(웃음).

박 저는 집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려고요. 그리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날에는 보신각 타종 방송을 보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김 아마 본가, 처가, 우리 집을 오가며 바쁘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일출 명소를 찾았지만, 자녀가 돌이나 생기니 집이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 깜짝 휴가 덕분에 가족들과 3박 4일간의 대만 여행을 계획했어요. 12월 31일에는 미리 준비해 둔 와인 등을 아내와 마시며 서로를 격려할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에는 전날 마신 술 탓에 숙취에 시달리고 있겠죠(웃음).

○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나 계획이 있나요?

임 저는 스물여섯 살부터 해외 현장에서 근무했어요. 1월부터는 국내 현장에 부임할 예정인데, 한국에서의 첫 업무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내년에 결혼도 준비하고 있는 데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작이 계획돼 있는 만큼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바람입니다.

박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일조한 만큼 중동 플랜트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알해보고 싶어요. 더불어 저 역시 가족 건강을 가장 바랍니다.

김 내년에는 KAMS 시스템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싶어요. 이 시스템으로 현장의 일도 혁신적으로 줄여주고 싶죠. 내년엔 저 자신에게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사우들은 본격적인 위스키 시음에 앞서 미니 강의를 들었다.



2019 현대건설 Best Issue 7



현대건설 세계지도를 확장하다

#기술력_대단해 #영역확장 #대성공
굵직한 사업을 여럿 수주해 글로벌 건설사의 명성을 떨친 한 해, 우리 회사는 27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마잔 개발 프로그램 패키지 6-12'를 비롯해 1조3695억원 규모의 'HPC Project(Package-1)', 5615억원 규모의 '김포-파주 2공구 프로젝트'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며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이는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시장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김포-파주 2공구' '안전도시철도 1호선 감단연장선 1공구' 프로젝트 수주에는 실드 TBM 공법이 힘을 다했다.

이 밖에도 최근의 '조지아 네스크라 수력발전소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신생국가 조지아에 진출하는 첫 발판임과 동시에 해외 진출 영역의 문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In 2019, Hyundai E&C solidified our position as a top-tier company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We continued to expand our business areas at home and abroad by receiving several large-sized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Marjan increment program in Saudi Arabia (worth about 3.2 trillion won), the Package-1 of the HPC project (worth about 1,369.5 billion won) and the Gimpo-Paju Construction Zone 2 project (worth about 561.5 billion won).



현대건설 작품, 전 세계 랜드마크가 되다

#역대급_건설 #랜드마크_전문 #세계지도_수정중
2019년은 우리 회사가 준공한 다수의 역작이 세계지도를 수놓은 해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을 도입한 비정형 건축물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쿠웨이트의 도시를 바다 위로 잇는 36.1km 초장대교량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작품을 탄생시키며 건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2000년 브라질 포르토 벨호 복합화력발전소 이후 12년 만에 중남미 시장에 다시 입지를 굳혔고, 쾰른 댈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우루과이에 첫 진출하며 새로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의 서산 태양광 발전소와 남해안 최대 규모 항만 시설인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국내 최고 면적 기술이 적용된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등 국내 여러 굵직한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 최첨단 공법이 빛났다.

This year, Hyundai E&C successfully completed unparalleled architectural projects including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built on three dimensional BIM and the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the 36.1-kilometer super long span bridge in Kuwait. In addition, our technological prowess and cutting-edge construction methods stood out in significant domestic projects such as the Seosan solar power plant, the Yeosu New North Port and the KB Integrated IT Center.



차별화된 가치로 주택시장의 품격을 높인다

#단_하나의_완벽함_디에이지 #라이프스타일_리더_힐스테이트
2019년은 우리 회사가 준공한 다수의 역작이 세계지도를 수놓은 해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건축 전 과정에 3D BIM을 도입한 비정형 건축물 '카타르 국립박물관'과 쿠웨이트의 도시를 바다 위로 잇는 36.1km 초장대교량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작품을 탄생시키며 건설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외에도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준공으로 2000년 브라질 포르토 벨호 복합화력발전소 이후 12년 만에 중남미 시장에 다시 입지를 굳혔고, 쾰른 댈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로 우루과이에 첫 진출하며 새로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국내 단일 최대 규모의 서산 태양광 발전소와 남해안 최대 규모 항만 시설인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국내 최고 면적 기술이 적용된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등 국내 여러 굵직한 현장에서도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 최첨단 공법이 빛났다.

Following the launch of our premium housing brand THE H in 2015, Hyundai E&C unveiled THE H Honorhills in August, which contributed to gaining the reputation in the domestic housing market that the differentiated value of THE H set a new standard for premium housing space in Korea. Hillstate set out to renew its brand in March and successfully increased its brand presence, leading to enjoying a high popularity among consumers.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문화의 새로움을 열다

#함께_만드는 #Great_Company #자기완결형_인재가_되자
올해는 특히 회사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10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돼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이는 아시아 건설사 최초, 세계 건설사 중 두 번째로 이룬 성과다. 더불어 석유화학 및 가스플랜트 산업 특화 표준인 ISO/TS 29001을 취득하고, 영국 로이드선협회의 Excellence Award를 수상하며 우리 회사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안전 관련 최고 권위 상인 2019 SHARP Award(싱가포르 노동부 주관)에서도 싱가포르 투아스 평가원 매립, 장이 동부 매립공사, MRT 동부선 T308공구 3개 현장이 무재해 150만 시간 이상을 달성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우리 회사가 시공한 아모레퍼시픽 사옥 또한 국내 최초로 세계초층 도시건축학회 주최의 '2019 CTBUH Awards' 3개 부문과 조정 분야 최고 권위의 '2019 IFLA Award',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019 IDEA'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함께 힐스테이트 온정의 수경 공간 'Wave Carpet'과 놀이터 'H Blue Playground' 또한 각각 '2019 IDEA'와 '2019 Asia Design Prize'를 수상하며 우리 회사가 디자인 분야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증명했다.

This year, our company staged various and new in-house campaigns as part of our efforts to make our organizational culture more agile and flexible. In March, business casual attire was accepted at a corporate level, and a series of conferences with CEO were kick-started in April. Moreover, a campaign on management policies started under the theme of "rapid decision," and its new approach attracted keen interest from all the staff and executive members.

'최초' '최고' 타이틀을 거머쥐며 역량을 인정받다

#올해의_주인공 #나야나_현대건설 #역시_건설업계_탑티어
올해도 우리 회사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2019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10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돼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이는 아시아 건설사 최초, 세계 건설사 중 두 번째로 이룬 성과다. 더불어 석유화학 및 가스플랜트 산업 특화 표준인 ISO/TS 29001을 취득하고, 영국 로이드선협회의 Excellence Award를 수상하며 우리 회사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안전 관련 최고 권위 상인 2019 SHARP Award(싱가포르 노동부 주관)에서도 싱가포르 투아스 평가원 매립, 장이 동부 매립공사, MRT 동부선 T308공구 3개 현장이 무재해 150만 시간 이상을 달성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우리 회사가 시공한 아모레퍼시픽 사옥 또한 국내 최초로 세계초층 도시건축학회 주최의 '2019 CTBUH Awards' 3개 부문과 조정 분야 최고 권위의 '2019 IFLA Award',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2019 IDEA'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와 함께 힐스테이트 온정의 수경 공간 'Wave Carpet'과 놀이터 'H Blue Playground' 또한 각각 '2019 IDEA'와 '2019 Asia Design Prize'를 수상하며 우리 회사가 디자인 분야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졌음을 증명했다.

Hyundai E&C was incorporated into the 2019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for ten straight years, proving that we have world-class competitiveness with regard to sustainable management. Hyundai E&C obtained ISO/TS 29001 certification specialized in petroleum, petrochemical and natural gas industries and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from Lloyd's Register. In addition, Amore Pacific's headquarters' building was awarded the 2019 CTBUH Awards, the 2019 IFLA Award and the 2019 IDEA in recognition of its innovative design.

글로벌 기업 사회공헌으로 '함께'의 가치를 나누다

#단순_기부_No #책임적인 #나눔경영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부지런한 걸음으로 가득 채운 한 해였다. 올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총 3580명, 봉사시간은 1만 7160시간이며 사랑나눔기금 모금액은 2억7896만6000원에 이르렀다. 올해 우리 회사는 보다 적극적인 나눔경영에 집중했다. 'SAFE CAP'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재난용 경안전모를 개발, 경주 지역 8개 학교에 3000개를 무료 보급하고 재난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함께 실시해 사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라크의 환아를 초청해 치료를 돕는 것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 지역에 대한 나눔에도 힘을 쏟았다. H Contech 해외기술봉사단, 해피무브 해외봉사단을 각각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 파견해 진행한 기술/문화교류와 봉사활동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한편 올해는 그룹에서 주관한 '2019 그룹 CSR 관리체계 진단 결과보고회'에서도 성과를 올렸다. CSR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연도별 이행 로드맵을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CSR 목표수립 부문'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도의적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나아가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혁신형 기업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n 2019, a total of 3,580 employees spent 17,160 hours in conducti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donated as much as 278 million won. This year, Hyundai E&C focused on "sharing management" in a more active way. As part of our CSR efforts, we developed the country's first light safety helmet to prepare for disasters through the Safety Cap Program and provided 3,000 helmets in eight school for free of charge. We also sent groups of volunteers to Indonesia and Myanmar with the aim to promote technologic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conduct overseas volunteering activities.

Out of Frame, 젊고 역동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다

#유투브_골드버튼을_향하여 #현대건설tv #구독과_좋아요_필수
2019년 한 해 우리 회사 유튜브 채널 총 조회 수 200만뷰, 올해는 특히 우리 회사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혁신적으로 그려낸 기업 홍보 영상과 래퍼 키썸과의 콜라보 뮤직비디오,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의 이야기를 담은 <현대건설의 위대한 도전> 영상이 온라인 채널을 뜨겁게 달궜다.

'Out of Frame'이라는 슬로건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은 과감하고 도전적인 구성으로 우리 회사의 첨단 기술력과 역동적 움직임,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표현해 기존의 기업 홍보 영상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키썸과 함께한 <Make Your Own Style, 현대건설> 뮤직비디오 또한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 수 30만을 넘겨 대중과 한층 가까워졌음을 시사했다. 이는 건설사가 대중가수와 협업하는 첫 시도로 활동적이고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교량에 적용된 기술과 공사 과정을 그린 <현대건설의 위대한 도전> 영상은 142만1553뷰(2019년 12월 17일 기준)로 조회 수 대기록을 세웠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젊고 역동적인, 동시에 역량과 경쟁력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During 2019, Hyundai E&C released a promotional video depicting the challenging spirit and creating thinking of our employees, a music video titled *Make Your Own Style*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rapper Kisum, and *Great Challenge of Hyundai E&C*, a video footage displaying the story of the construction process of Kuwait's Sheikh Jaber Al-Ahmad Al-Sabah Causeway. Hyundai E&C's YouTube channel were well received online with about 2 million views.



혼자가 두렵고 타인은 괴로운 ‘관태기’

마음산책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 긴장감으로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참석해야 하는 모임이 늘어 걱정이라면 ‘관태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면 이번 칼럼을 정독해보자.

글=박상미 마음치유 전문가

누구나 한번쯤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직준기’가 찾아온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의욕 상실, 관계부진 등 모든 회사생활에서 ‘노잼’시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관태기’는 그중 사람과의 관계에서 염증과 회의를 느끼는 때를 말한다. 이미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지쳐 자발적인 ‘아웃사이드’나 ‘나홀로족’을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당신. 인간관계에서 오는 멀미로 잠시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까지 혼자 지낼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관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자.

혼자 있고 싶은 나, 혹시 관태기?

관태기는 ‘관계+권태기’의 합성어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싫증을 느낀다는 신조어다. 만일 이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불안하고 조금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동료와의 관계에서 회의감을 한 번쯤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에 해당하는 96.2%가 ‘직장생활에 권태기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은 직장인은 고작 3.8%에 불과하다. 그들이 권태기를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반복되는 업무로 견디기 힘든 경우’(34.1%), 두 번째가 ‘직장 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22.3%)다. 이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며 지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들어 회사와 동료를 떠올리지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많은 에너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모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적으로 힘든 상태를 무시하고 방치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관태기는 번아웃 상태의 신호!

번아웃은 정신과 신체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다. 모든 일에 무기력하고 업무 및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친 직장인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번아웃에 빠지면 업무 능률이 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며 동료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면 만성 무기력증 또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알아차리고 방전되기 전에 스스로 충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인간관계 과부하에 걸려 방전된 상태라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

때로는 자발적인 아웃사이드가 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자발적인 아웃사이드란, 근무 중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심신을 충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미뤄두고 보지 못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어도 좋고, 카페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쉬는 것도 추천한다. 비록 한 시간여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긴장감과 책임감, 의무감, 피로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것이 오후 근무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혼자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퇴근 후 극약 처방을 써보자. 업무를 마친 이후 회사와 연결된 관계를 모두 ‘OFF’ 모드로 변경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스스로 불안해하고 어쨌면 주변에서 그런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차츰 한두 명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다. ‘오로지 본인을 만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관태기 극복에 한발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외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당연히 있다. 공식·사적 관계를 포함해 관태기를 겪고 있다면 ‘고단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관계를 점검하



고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긍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존감까지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떨어져야 한다.

관태기를 극복하는 방법!

관태기 극복의 키포인트는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집에서 잘 쉬는 것 외에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가 생활이 싫다면 혼자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미뤄 뒀던 공연과 영화 등을 관람하는 것도 좋다. 주 1회 정도는 땀을 내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내보내 우울했던 기분을 없애고 자연스레 체력까지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친분 관계를 쌓는 것도 차근차근 진행해 보자. 무작정 사람을 사귀는 친목 도모의 모임이 아닌 관심사가 같은 동호회나 모임에 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책 읽는 것을 즐겨한다면 같이 모여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말하는 모임에 나가보자. 관심 있는 ‘활동’을 타인과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는 것도 관태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순히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줄 메모 일지라도 작성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성찰까지 가능해 어느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 불편했는지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당장은 타인에게 지쳐 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초조하게 느끼거나 조금해하지 말고 잠시 혼자만의 휴가 시간으로 즐겨보자. 마음의 여유는 관태기를 극복하게 만들고, 동료는 물론 금세 새로운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상미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고민은 익명으로 소개됩니다. ✉ news@hdec.co.kr

고민상담소

업무는 물론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는 것도 지치고 반응하는 것도 피곤해요. 회식도 자연스레 참석하지 않게 되고요. 연말이라 이래저래 모임이 많아지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많이 지친 상태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면 타인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단체생활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요. 현재 번아웃과 관태기가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아 긴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점심시간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식사는 같이 하되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이야기를 꺼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남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 기억할 거예요.

그럼에도 스트레스가 커진다면 무조건 피하지 말고 솔직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마음과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이번 회식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업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요.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강요하진 못할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했다면 마음과 몸을 충전하는 데 애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고 싶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실컷 보고, 맛있는 요리도 먹고 맘껏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나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레 생길 거예요. 관태기를 겪고 있어도 가끔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역시 도움이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로 수다를 떠는 것도 관태기 극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Check List! 관태기 테스트

- ☐ 혼자가 편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만든다
- ☐ 타인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피곤하다
- ☐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개인적인 삶과 취미를 추구한다고 듣는 편이다
- ☐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 푸는 것을 선호한다
- ☐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 중 편하게 연락할 지인 수가 8% 미만이다
- ☐ 면대면 대화나 전화보다 문자나 메신저가 더 편하다
- ☐ 3명 이하의 소규모로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
- ☐ 처음 만났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자리가 어색해서 일부러 안 간 적 있다
- ☐ 위와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는 것은 자신이 없다
- ☐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려 노력하지 않고 이런 것이 귀찮다

테스트 결과

2개 이하 아직 관태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관태기 극복 방법을 알아두세요!

3~6개 이하 관태기가 의심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극복 방법을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7개 이상 관태기를 꽤 심하게 앓고 있네요.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의 충전이 필요해요!



2019 대중문화 총결산

‘기생충’부터 ‘펑수’까지 새로운 판의 도전과 응전

2019년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도전과 응전(應戰)’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열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과 유튜브 같은 채널이 우리네 대중문화에 도전을 요구했다면, <기생충> 같은 작품이 해외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해이기도 했다. 글=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한국영화 100주년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올해는 한국영화가 100주년을 맞은 해다. 1919년 김도산이 만든 최초의 한국영화 <의리적 구토>가 나온 지 100년이 흐른 것. 이를 기념해 영화계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최초의 영화가 상영됐던 단성사는 100주년을 기념해 영화역사관으로 재탄생됐고,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영화 100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가장 빛나게 만든 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 5월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이다. <기생충>은 이후 전 세계 영화제는 물론이고 평단, 관객까지 사로잡았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큰 흥행 성공을 거둔 <기생충>은 내년 2월 열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국제장편영화(외국어영화) 부문 후보 지명은 물론이고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다양한 일제강점기 소재 콘텐츠들

올해는 또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일제강점기 소재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다. MBC가 방영한 <이몽>은 임시정부가 수립되던 1919년 무장독립투쟁 최선봉에 선 비밀결사 의열단을 이끌던 인물 김원봉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도 쏟아져 나왔다. 100년 독립의 염원을 다시 통일의 염원으로 이어 답아낸 SBS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꿈>, 근현대사 100인의 인물을 한국을 대표하는 셀레브리티 100인이 소개하는 MBC 연작 캠페인 <기록, 폭>, 백범 김구를 그림자처럼 지켰던 여성 독립투사 연미당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독립투사 연미당>,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KBS가 꾸민 특집 공연 <내가 사랑한 아리랑> 등이 그러하다. 이 밖에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MBC <선을 넘는 녀석들> <같이 편디> 등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들을 재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OTT와 유튜브가 가져온 방송가의 변화들

3년 전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조금씩 부상해 온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시대가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 지상파 방송 3사와 통신사 SK텔레콤이 합작해 웨이브(Wave)라는 OTT를 출범했고 이에 대응하듯 CJ ENM과 JTBC가 합작해 기존 티빙(Tving)을 업그레이드시키는 OTT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기존에 있던 넷플릭스와 국내 OTT인 왓치플레이에 이어 웨이브와 티빙 업그레이드까지 이른바 ‘OTT 대전’이 벌어졌다.

여기에 유튜브 같은 새로운 채널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타고 기존 방송 플랫폼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방송가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방송에서만 머물던 대중문화가 이제 OTT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플랫폼 성격이 달라지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은 기존 방송에서는 시도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19금 스탠드업 코미디를 담은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나 다소 수위가 높은 추리형 게임 예능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 유튜브는 이제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함께 끌고 가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MBC <무한도전> 종영 후 김태호 PD가 만들고 있는 <놀면 뭐하니?>는 유튜브를 통해 먼저 새롭게



1 영화 <기생충> 한 장면. 2 트로트 열풍의 주역 송가인. 3 MBC <놀면 뭐하니?>의 유재석. 4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국내 방송 콘텐츠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방송가를 대통합한 대세 펑크, 펑수!

공개했고, ‘유폐레쉬’나 ‘뽕포유’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유재석을 마치 1인 크리에이터처럼 성장시키고 있다. 또 나영석 PD 역시 <신서유기>의 외전으로 ‘아이슬란드 간 세계’를 업로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에 뛰어들었다. OTT나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은 이제 국내 방송 콘텐츠까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송가인과 유산슬 열풍, 재조명된 트로트

올해 TV조선 <미스트롯>이 배출한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불러일으킨 트로트 열풍은 뜨거웠다. 중장년층들은 어딘지 문화 소비의 주변으로 치부되었던 트로트를 중심으로 끌어올린 송가인에 열광했고, 젊은 세대들은 송가인의 장르를 넘나드는 창법에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묘미에 빠져들었다. ‘트로트계의 BTS급 인기’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콘서트 티켓은 오픈되자마자 매진됐고, 심지어 <가인이어라>라는 제목의 콘서트 중계방송은 특별편성에도 불구하고 8.5%의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 트로트 열풍은 이것이 시작이었다.

MBC <놀면 뭐하니?>의 이른바 ‘뽕포유’ 프로젝트에서 유산슬이라는 예명을 갖고 신인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유재석은 음원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예정된 성공 신인이 되었다. 신인 트로트 가수가 음원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또 홍보 행사에도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촬영한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업계 사람들마저 재조명했다. 15분 만에 곡을 써내고 1시간 만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트로트업계의 이야기는 기묘하게 B급 감성과 어우러져 젊은 세대들을 트로트의 매력에 빠뜨렸다. 이는 최근 들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뉴트로(세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감성과 연결돼 젊은 세대에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여졌다. 세대를 넘는 트로트 열풍이 생겨난 이유다.

펑수 신드롬, 방송가를 대통합하다

나이는 열 살, 키는 210cm, 남극 ‘펑’씨에 빼어날 ‘수’라는 의미의 펑수란 이름을 가진 남극 유일의 자이언트 펭귄 한 마리가 올해 한국의 방송가를 대통합하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오디션을 봐서 EBS 연습생으로 발탁된 펑수는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가 개설된 이래 도처에 출몰(?)하며 조금씩 화제를 끌어들였고 지난 9월 중순 업로드된 ‘EBS 아이돌 육상대회(e육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반개맨·뽕박이·뽕뽕이 같은 향수와 추억을 자극하는 EBS 캐릭터들이 총출동한 ‘e육대’를 통해 펑수는 2030세대가 열광하는 캐릭터가 됐다.

EBS의 캐릭터지만 SBS 라디오 <배성재의 텐>,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는 물론이고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도 출연하는 등 방송사 대통합을 이뤘고 영화계는 물론 광고계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이돌 캐릭터지만 할 말은 하는 ‘사이다 화법’을 구사하는 펑수는 유튜브 채널의 특성을 잘 접목시킨 캐릭터로 성공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에게는 새로운 유튜브 스타로, 기성세대들에게는 ‘키덜트 감성’을 자극하는 캐릭터로서 펑수 신드롬이 탄생했다.





안나 빛어낸 애니메이터 이현민 슈퍼바이저

“꿈 이룬 건 암투병 엄마가 미국 유학 격려한 덕분”

피플인사이드 천만관객을 돌파한 ‘겨울왕국2’가 5년 만에 개봉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한국인 애니메이터 이현민 슈퍼바이저. 서울에서 나고 자라 ‘꿈’의 직장 디즈니에 입성한 그가 ‘겨울왕국2’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애니메이터로서의 생활을 공개했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안나도 엄청난 능력자예요. 내면의 힘과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공감 능력이 안나만의 초능력이지요. 그런 안나가 있기에 엘사도 마음 놓고 마법을 발휘할 수 있죠.”

지난 11월 25일 서울 광화문 호텔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대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안나에겐 언니 엘사 같은 마법 능력이 없다는 얘기에 반박했던 사람, 바로 안나 캐릭터를 총괄한 한국인 스태프 이현민(38) 슈퍼바이저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꿈의 직장’ 디즈니에 입성한 그가 크리스 벅·제니퍼 리 감독, 피터 델 베코 프로듀서와 함께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어릴 적부터 만화 보고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애니메이터란 직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애니메이션이란 것의 일부가 되기를 꿈꿨는데,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죠.”

안나 캐릭터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디즈니 작품은 여러 명의 협업으로 이뤄지는데 안나 캐릭터도 캐릭터 디자인, 의상 디자인, 목소리 담당 등이 따로 있다.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로서 안나의 성격을 어떤 표정, 몸짓으로 드러낼지 연구해서 80~90명 애니메이터의 작업을 한 사람이 한 것처럼 통일성을 부여했다. 이걸 안나가 할 행동이 아닌 것 같다. 하면 땀그려서 바로잡고, 나 같은 슈퍼바이저가 엘사·스벤 등 캐릭터마다 한 명씩 총 6명 있었다.

1·2편에 모두 참여하며 느낀

안나 캐릭터의 변화가 있다면.

안나가 월가닥에 밝고 씩씩하잖나. 언니를 찾아 나선 1편에선 겁 없이 직진하는 캐릭터였다면 이제 평생 소원하던 가

족, 아렌델 왕국, 새로운 친구들, 사랑하는 남자까지 잃을 게 많아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지키려는 모습이 강해졌다.

다정한 말투, 풍부한 표정과 손동작이 안나와 똑 닮았다.

언니가 안나처럼 활달하고 밝다. 언니한테 영감을 받는데 나를 보고 따라 그렸다는 애니메이터도 있다. 애니메이션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 평소 주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한다. 애니메이터 중엔 흉내 잘 내는 분도 많다.

한 작품을 4~5년 작업하다 보니 500여 명 제작진이 가족 같이 가까워진다. 기자간담회에서 제니퍼 리 감독은 “이현민 슈퍼바이저가 애니메이터의 꿈을 좇는 데 어머니의 지원이 컸다. 그제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다”고 했다. 이 슈퍼바이저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까지 응원해 주시다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꿈을 이루는 것을 못 보셨다”고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 눈물 났다고.

감독님들이 후반부 꼭 ‘쇼 유어셀프’ 장면을 고심하며 만들었는데, 이 장면의 스토리보드와 노래가 완성돼 처음 내부 상영했을 때 다들 눈물바다가 됐다. 엘사와 안나가 자신의 역할이 뭔지 완벽하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순간에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극 중에서 간접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나. 나도 어머니가 위암 판정 받으시고도 미국에 공부하러 가라고 끝까지 밀어주셨다. 수능 보고 특채로 국내 대학(전문학과)에 붙는 거 다 보시고 12월에 돌아가셨다. 그런 나한테 그 장면이 굉장히 뜻깊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아이들이 안나와 엘사, 올라프 같은 캐릭터를 진짜 존재한다고 믿고 친구처럼 애정 갖고 바라볼 때죠”

건설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이사를 하며 온 가족이 더 똘똘 뭉쳤다는 이현민 슈퍼바이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학과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다 미국 유학을 결심할 수 있었던 데도 이런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됐다고. 그는 한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 미술을 전공(학사), 월트 디즈니가 세운 예술학교 칼아츠 대학원에 진학했다. 타사에서 TV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며 직접 만든 단편으로 주목받고, 스물여섯 살에 디즈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겨울왕국> 외에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공주와 개구리> <곰돌이 푸> <주먹왕 랄프> <빅 히어로> <주토피아> <모아나> 등에 참여했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으로 “아이들이 안나와 엘사, 올라프 같은 캐릭터를 진짜 존재한다고 믿고 친구처럼 애정 갖고 바라볼 때”라 답했다.

또한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최초의 여성인 제니퍼 리 감독에게도 큰 영감을 받는다고. “칼아츠를 졸업했던 12년 전에 비하면 확실히 할리우드도 인종과 성별이 다양해졌다. 요즘엔 유튜브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독학하는 학생도 많아서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양한 관점이 많을수록 더 재밌고 영감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1 <겨울왕국2> 대한 기자간담회 당시 이현민 슈퍼바이저. 2,3,4,5 영화 <겨울왕국2>의 한 장면. 6 안나가 올라프를 안고 있는 <겨울왕국2>의 한 장면.

BTS의 ‘Science World’

과학산책 BTS의 인기 비결을 묻는다면 그들의 노래나 춤, 뮤직비디오, 외모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거론될 것이다. 누군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을, 방시혁 대표의 주장처럼 ‘시대정신 담긴 메시지’를 성공 이유로 꼽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 폭발적인 인기의 비결인지 하나 콕 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필자는 BTS가 노래를 통해 전하는 과학적 이야기에 특히 매력을 느낀다. BTS 앨범 수록곡의 가사를 살펴보자. 그들의 노래는 정말 과학적이다! 글=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가장 거대한 사랑 고백

당신이 사랑에 빠진다면?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비이성적 행동 때문에 남들도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쉽게 눈치채게 될 것이다. 평소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목적하게 증가하는 나의 테스토스테론<호르몬 전쟁>’ 때문이다. 뇌신경화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뉴런과 뉴런의 신호 전달에 따라 변화한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호르몬과 같은 화학물질의 전기화학적 신호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호르몬과의 싸움을 이겨낸다<호르몬 전쟁>’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BTS의 노래<호르몬 전쟁>에 등장하는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그들의 노래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 대한 BTS의 과학적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호르몬과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찾아 137억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빅뱅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물론 빅뱅이 일어날 때는 원자는커녕 전자나 원자핵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가 먼저 생겨나고 별이 탄생했다. 핵융합을 통해 더욱 무거운 원소가 합성되고, 초신성 폭발로 DNA를 구성하는 원소도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우주가 진화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믿으며, 빅뱅우주론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도 갖고 있다. 이것이 BTS가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DNA>’이라는 거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이유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우주의 섭리<DNA>’라고 여길 만큼 운명적이다. 하지만 DNA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돼 운명적 사랑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순 없다. ‘널 만난 건 이 우주가 빛어낸 한 편의 드라마<Heartbeat>’ 같다는 것은 사랑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DNA에 새겨지지 않은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 마음은 DNA와 같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DNA>’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광대한 시공간 속에서 서로 만나 경험을 공유해야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등장한 것은 수많은 우연에 의한 것이다.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사랑은 고사하고 지구 탄생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광대한 우주에서 기적 같은 확률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주에 대한 BTS의 끝없는 사랑

사랑을 노래하는 데 인상 깊은 것은 서로의 만남을 ‘수학의 공식<DNA>’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통해 역학 체계를 완성했을 때 사람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우주를 생각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특정 시간의 물리적 상황을 알고 있으면 어떤 시간에서의 상황도 예측 가능하다. 이것이 수학 공식 같은 우주인 결정론적 세상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너와 나는 만날 운명으로 결정돼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은 없다. 이는 인간의 과학 수준이 낮아 아직까지 공식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확률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한 BTS의 사랑 고백은 <소우주(Mikrokosmos)>와 <134340>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소우주>에서는 별과 별빛에 빚대어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 ‘도시의 불, 이 도시의 별 어릴 적 울려본 밤하늘을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소우주>’처럼 별과 인간을 대비시킨 부분은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별이라는 느낌을 준다. 분광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별과 인간을 굳이 구분할 이유도 없다. 별은 적외선에서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기 스펙트럼을 방출하고, 인간은 단지 적외선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니까.

<134340>은 우주를 소재로 한 사랑 노래 중 백미다. BTS는 1930년 발견돼 76년간 행성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2006년 왜(소)행성134340으로 강등된 명왕성을 사랑과 연관지어 노래했다. ‘넌 정말로 Eris를 찾아낸 걸까 말해 내가 저 달보다 못한 게 뭐야<134340>’라는 가사처럼 2005년에 발견된 에리스가 강등의 단초가 됐다. 명왕성은 행성이라는 분류에 걸맞지 않게 달보다 크기가 작았고, 새로 발견된 에리스보다도 작았다. 에리스를 발견한 미국은 명왕성을 행성으로 분류했던 관행에 따라 에리스가 10번째 행성으로 분류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에리스가 행성으로 명명되기는커녕 명왕성이 행성에서 퇴출되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무너진 왕성에 남은 명이 된 의미가 있어<134340>’라는 말은 명왕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소행성으로 강등된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미다. ‘어떤 이름도 없이 여전히 널 믿는<134340>’ 나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어둠 속에서 공전하는 명왕성에 자신의 모습을 투사한 것이다. 이쯤 되면 ‘BTS world’를 ‘Science World’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문화 책갈피

연말의 설렘을 더해줄 겨울 만끽 핫플레이스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2020**



눈부시게 거대한 얼음 기둥과 얼음 조각이 가득한 세상에서 색다른 연말을 즐겨 보는 건 어떨까.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에 현실판 얼음나라가 펼쳐진다. 하늘 높이 솟은 얼음분수 사이를 걷고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봅슬레이 등을 즐기다 보면 비로소 겨울

을 만끽하는 기분이 들 것이다. 빙어낚시, 썰트랙, 승마체험 등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돼 어른, 아이 모두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대형 얼음을 깎아 만든 동화나라 캐릭터는 아이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한다. 어둠이 내린 후에는 찬란한 조명이 얼음 세상을 화려하게 물들여 겨울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코끝 시린 야외에서 뜨거운 군고구마를 호호 불어 먹는 재미는 덤. 5분 거리에 전국 최장의 천장호출량다리도 있으니 둘러보는 것도 좋다.

기간 2019.12.21(토)~2020.2.16(일)

시간 주간 오전 9시~오후 5시, 야간 오후 6시~10시(일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

주소 충남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문의 041-942-0797~8

자녀와 함께 환상의 축제 **파라다이스시티 윈터박스**



한겨울 크리스마스와 딱 어울리는 환상의 나라가 인천에 있다. ‘상상 속 밤의 유원지’ 콘셉트로 꾸며진 실내 테마파크 ‘파라다이스시티 윈터박스’가 바로 그곳이다.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유명한 이곳은 드라마<호텔 델루나>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와 6시에는 어른도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루나 카니발이 펼쳐진다. 관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 퍼포먼스 외에도 다이내믹한 놀이기구와 신나는 카니발 게임을 즐기다 보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행복감에 사로잡힌다. 추운 겨울, 따뜻한 실내에서 환상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 연말을 맞아 내년 1월 5일까지 운영하는 윈터윈터페스타 기간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포토존이 즐거움을 더하니 겨울이 끝나기 전에 방문해 보는 게 좋겠다.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주소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문의 032-729-7500

찬란한 빛의 향연 **별빛정원 우주**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린 곳, 별빛정원 우주. 낮에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이 만발한 유럽형 플라워 가든에서 향기에 취하고, 밤에는 반짝이는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별빛축제를 즐겨보자. 약 4만 2975㎡의 대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빛의 향연은 은하수 위를 걷는 듯한 낭만을 선사한다. 101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빛의 터널 ‘터널 갤럭시 101’과 ‘우주 스테이션’ ‘시크릿 가든’ ‘반딧불이 숲’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공간을 걸다 보면 어느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를 운영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가득한 이곳은 사진 가는 곳, 발길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감각적인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된다. 하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우주타워’에 올라보자. 35m 높이의 타워형 전망대 위에서 주변 경치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색다른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덕평자연휴게소와 이어져 있는 별빛정원 우주는 휴게소 맛집에 들러 간단히 요가하는 재미도 선물한다.

시간 주간 오전 11시~오후 5시, 야간 오후 5시~11시(일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

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154번길 287-76

문의 031-645-0002





여행칼럼 연말을 맞이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나라만 다녔다면, 이번에는 '진짜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누구나 한 번쯤은 직접 보길 소망하는 오로라. 매서운 추위도 녹일 밤하늘의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오로라 스폿을 소개한다. 글=강은비 / 사진=게티이미지

인생 버킷리스트 오로라 보러 떠나는 ‘진짜 겨울여행’

상상이 현실이 되는 오로라 여행지,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국토의 80%가 얼음(빙하), 불(화산·용암), 물(온천)로 이뤄진 이색적인 여행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매료돼 많은 이가 여행하길 꿈꾸는 레이카비크는 오로라가 유명하다.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의 환상적인 커튼 형태의 오로라가 아이슬란드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공불빛이 없어 오로라를 만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 오로라 외에도 빙하 호수, 거대 협곡, 간헐천, 블루라군 등 경이로운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고 사방이 뚫린 버블호텔, 파노라마 글라스 등 이색 호텔에서 특별한 하룻밤까지 경험할 수 있다.

여행지 트외르넨 호수, 뢰이가베구르 거리, 하들그림스키르카, 게이시르, 블루라군

**북극으로 가는 관문의 오로라 도시,
노르웨이 트롬쇠**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극권 최대의 도시 트롬쇠. 이곳은 북극점에서 350여km 떨어져 노던라이트(Northern light)가 발생하는 극지대 지역 오로라 대(Aurora oval)에 속해 연중 200일 이상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의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아 빛이 많은 도시와 트롬쇠로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오로라 관측 외에도 순록썰매, 키크랩 잡기, 고래투어, 바다낚시 등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다.

여행지 트롬쇠 전망대&케이볼카, 극지박물관, 폴라리아 수족관



NASA가 선정한 오로라 최고 관측지, 캐나다 옐로나이프

1000km 반경에 산맥이 없어 넓은 평지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 최적의 조건을 지닌 곳이다. 심지어 옐로나이프 주변에는 바다도 없어 구름 생성 확률도 적다. 그 덕에 이곳에서 3일을 머무르면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무려 95%나 된다고. 걱정하고 오로라를 보기로 결심했다면 옐로나이프 시내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로라 빌리지를 방문해도 좋다. 티피(Teepee)라 불리는 원뿔형 텐트에서 지내며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에서 오색의 장막이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오로라를 찾아 떠나는 오로라 헌팅투어를 신청하자. 오로라 관측의 즐거움을 더해줄 극지방 얼음낚시, 개썰매 타기 등 독특한 겨울 액티비티도 빼놓을 수 없는 캐나다 여행의 묘미다.

여행지 옐로나이프 역사박물관, 프레임 레이크, 올드타운 전망대